’25년 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1. 회의 개최

연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5-1	1.15	회의실	8/12	4	1	13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강필오·박양우·박종수·유한별·이경주·이숙희·정인영·정회(8명)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원승연(경영본부장), 김민호(콘텐츠본부장), 정용욱(뉴스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부장)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7	1	0	2	10	0	10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0	0	0	10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지역 경제 관심을 가지고 보도 바람	<뉴스데스크> 명절 앞두고 광주전남 3,000여 명 임금 체불 신고(1.19), “임금 체불 생지옥입니다”··회장은 ‘모르쇠’(1.21), 햇빛과 바람으로 성장하는 신안군 인구 경제 살렸다(1.23), <뉴스투데이> 광주시, 올해 민생 경제 회복에 9,800억 원 투입(1.24), “주민과 함께 만든 기적, 신안군의 경제 혁신 모델”(1.30), <시사 용광로> 대내외 위기, 광주경제 타격은?(2.6) 등 방송 조치	’25.1.
〃	<시사 용광로>, ‘광주시’로 표기함. 공식 행정도시명인 ‘광주광역시’로 표기 바람	보도 책임자와 담당 기자 전달 및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	지자체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 및 소통 기회 바람	<뉴스데스크> 전남도-구글 ‘관광 활성화’ 손 잡았다··전국 최초(1.22), 탄핵 정국 속 김영록 지사는?(1.23) 광양시 천만 K-관광도시 조성··청사진은?(1.25), <뉴스투데이> 나주시·보성군도 민생회복지원금(1.21), 광주서 사라진 노란 자전거(1.23), <시사 용광로> 2025년 전남도는?(1.23) 등 방송 조치	〃
〃	제주항공 사고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해서 보도 바람	<뉴스데스크> 참사 여객기 양쪽 엔진에서 가창오리 깃털·혈흔(1.25), 제주항공 참사 현장 수색 종료··수습 파편 신원 확인 중(1.26), 활주로 2km 남기고 블랙박스 기록 끊겨(1.27) 등 방송 조치	〃
〃	고발성 보도는 후속 취재를 통해 문제 해결 과정 계속 전달해주길 바람	<뉴스데스크> 5.18 성폭력 피해 치유··‘열매’ 본격 활동(1.22), 장비도 부족, 순찰도 허위(1.23), <뉴스투데이> 정치인도 무관용 불법 정당 현수막 첫 과태료 부과(2.12), 의뢰인 공탁금 8천만 원 횡령한 변호사 검찰 송치(2.12) 등 방송 조치	〃
〃	비상계엄 문제 계속 보도 바람	<뉴스데스크> “불법 계엄 반복되지 않도록”··시민 의견 모은다(1.21), 모르쇠 일관하며 수사 거부··시민들 “파면이 답”(1.22), 반성 없이 변명만··“윤 대통령 파면해야”(1.23), 설 연휴에도 귀성	〃

		객까지 “윤석열 파면하라”(1.25), <시사톡 라이브> 윤석열 대통령 헌재 출석과 공수처 수사 거부(1.22), 내란 조사 국정 조사, 청문회 첫 날>(1.23) 등 방송 조치	
〃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문제 관심을 두고 보도를 바람	<뉴스데스크> 광주 노사민정, GGM 조정·중재 특위 본격 가동(1.20), GGM 노사, 중재안 받을까(1.22), GGM 노조 “조정중재위, 주주단에서 독립해야”(1.23), ‘GGM 파업 중재’ 조정특위, 의견청취 완료(1.31) 등 방송 조치	〃
교양	<광주MBC 보다> 재활용 관련 방송에서 다양한 정보 부족 아쉬움	편성 책임자와 담당 PD 전달 및 향후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
기타	홈페이지 디지털 콘텐츠, 세분화된 섹션으로 다양한 시청자층 관심 끌고 활용도 높이길 바람	<한국의 괴물>,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한국의 굿>, <월간본슐랭> 등 주제별 콘텐츠 운영 조치	〃
〃(방심위 의견)	제주항공 사고 관련 방송에서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음향 또는 언어 등 방송에 있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	편성과 보도 책임자 의견 전달 및 규정 준수 권고 조치	〃
합계		10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지역 경제 관심을 가지고 보도 바람(강필오)	지역경제 문제에 최우선 관심을 두고 보도하겠음	○		
〃	<시사 용광로>, '광주시'로 표기함. 공식 행정도시명인 '광주광역시'로 표기 바람(박양우)	방송 제작 여건상 약칭과 정식명칭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되도록 정식명칭을 사용하겠음	○		
〃	지자체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 및 소통 기회 바람(박종수)	자치단체 정책들을 적극 소개하고 효율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알려나가겠음	○		
〃	제주항공 사고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해서 보도 바람(유한별. 이경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겠음	○		
〃	고발성 보도는 후속 취재를 통해 문제 해결 과정 계속 전달해주길 바람(이경주)	고발성 보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연속선상에서 보도될 수 있도록 하겠음	○		
〃	비상계엄 문제 계속 보도 바람(이숙희)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 재판, 그리고 지역민 여론은 가장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도하겠음	○		
〃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사문제 관심을 두고 보도를 바람(정회)	지역경제와 관련해 중요한 사안인만큼 노사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교양	<광주MBC 보다> 재활용 관련 방송에서 다양한 정보 부족 아쉬움(정인영)	제작 시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하겠음	○		
기타	홈페이지 디지털 콘텐츠, 세분화된 섹션으로 다양한 시청자층 관심 끌고 활용도 높이길 바람(이경주)	다양한 카테고리를 통해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쉽도록 하겠음	○		
〃(방심위 의견)	제주항공 사고 관련 방송에서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음향	관련 규정을 준수해 방송하겠음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또는 언어 등 방송에 있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5년 1월)

일 시		2025년 1월 15일(수) 17시	장 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강필오·박양우·박종수·유한별·이경주·이숙희·정인영·정회(8명)		
	회사	김낙곤 사장, 원승연 경영본부장,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정용욱 뉴스팀(4명)		

▣ 회의 내용

○ 박양우 위원장 : -여러분 반갑다. 서울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여기도 눈이 많이 온 것 같다. 눈발이 날리는 것을 보니까 서울보다 더 오는 거 같다. 오늘 사실 아침부터 비상계엄 관련해서 방송, 저는 주로 엠비시를 봅니다만, 우리 헌정사에 대한민국 역사에 가슴 아픈 순간을 봤다.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없어야 한다. 빨리 헌재에서 결정이 되고 나라가 정상화되어야만 안보나 외교관계 경제문제 사회 전반 문제가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착잡한 마음으로 왔다. 25년 을사년 맞아 첫 번째 시청자위원회를 열게 됐다. 광주MBC 가 올해도 지역사회에 공기로서 소임을 다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좋겠다는 당부와 광주MBC가 잘 되길 기원한다. 1월 회의를 시작하겠다.

○ 김낙곤 사장 : -2025년 첫 회의다. 올해는 창사 61년을 맞게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 서울에서 와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린다. 오늘 4시부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진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뉴스 상황, 특보 상황을 점검했다. 역할을 열심히 잘해서 만나면 좋은 친구로서 역할을 하겠다.

○ 박양우 위원장 : -업무보고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다.

○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 -12월 27일 라디오 송년 특집 <시사톡 라이브> 토크콘서트를 방송했다. 12월에는 TV 특집 <푸른 뱀, 해를 품다>, UHD <한국의 괴물>, 광주광역시 5개 구청 타운홀미팅 제작 및 편성을 진행했다. 1월의 주요 계획으로 18일 <푸른 뱀, 해를 품다>를 방송한다. 25일 UHD <타이거즈 왕조의 시작>을 방송하고, TV와 라디오 신규프로그램 기획 회의, 유튜브 콘텐츠 기획 회의 등을 거쳐 2월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론칭할 예정이다. 특집 다큐 <종부의 레시피>를 제작 중이며 곧 시청자에게 선보일 것이다.

○ 정용욱 뉴스팀장 : -12.3 내란 사태 관련 연속보도를 했다.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K-민주주의 구현했다는 것과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로 용산을 향했다는 것, 다시 보는 5.18 정신과 민주주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윤석열 체포 실패 지역민 반응 등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했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12월 29일 사고 당일 무안공항에 취재기자 2명, 영상기자 2명을 파견했고, 광주·목포·여수 MBC 공동 취재를 진행했다. 뉴스특보를 두 차례 진행했는데 높은 시청률을 보이기도 했다. 광주시민 희생자가 많아 뉴스특보에 높은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일 <뉴스데스크> 특집편성에서는 20.4%가 나왔다, 12월 30일 로컬 <뉴스데스크>를 20분 편성했는데,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 규정에 맞게 설치했나? 의혹 제기, 계속되는 추모 행렬, 무안공항에 쌓이는 온정, 유가족 비하 및 명예훼손 등 연속보도를 했다. 이숙희 부위원장님께서도 제보를 해주셨는데 옛 전남도청 화재도 신속 보도했다. <시사 용광로>에서는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 개혁 방향은?, 탄핵 이후 야당의 역할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무엇이 대형 참사를 불렀나?, 2025년 광주시는? 등을 주제로 방송했다. 주요 계획으로는 각종 외부 제작 지원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광복 80주년, 5.18 45주년, 지방자치제 30년 등 다양한 주제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탄핵 이슈 조기 대선 국면에 적극 대응하고, 노벨문학상의 도시로서 다양한 정책 등을 짚어보고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다.

○ 강필오 위원 : -<테마기행 길> '보물을 품은 화순의 길' 편에서는 개미산 전망대, 풍경 자체가 힐링이 되는 만연산,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아름다운 적벽의 절경, 메기와 시래기의 찰떡궁합 민물 메기탕과 메기구이, 흑염소 등 먹거리, 운주사, 세량제 등 걷고 싶은 화순에 관해 방송했다. 최주봉 사회자, 산림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출연진과 어우러진 매끄러운 진행이 돋보였다.

-수출은 둔화하고, 내수는 침체하여 최근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다. <광주MBC 뉴스데스크> '내년은 나아질까? 경제 전망은 '어두움'' 보도에서는 내년 전망에 대해 방송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둔화, 소비 심리 위축, 부동산 내림세에 대해 알려줬다. 모두가 궁금해했던 내용과 전문가의 전망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깊이 있는 내용을 나눠줬다고 생각한다. 지역 경제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해주길 바란다.

<전설의 타이거즈> '최초로 현역 출연' 김선빈 전설의 팩트 폭력 입담 대공개 편에서는 김선빈 선수의 한국 시리즈 MVP 소감, <유퀴즈>에 나성범 선수를 대신 보내고 <전설의 타이거즈>에 나온 김선빈을 만났다. 홈런 같은 안타를 쳤을 때 당시의 심정, 한국 시리즈 비하인드 스토리, 아내와의 통화로 김선빈 선수의 입담을 볼 수 있었다. 유튜브의 장점을 잘 살려 야구 비하인드 스토리를 나눠주는 프로그램인 <전설의 타이거즈>를 즐겨 시청하고 있다. 현역이 나와서 더 좋았다.

○ 박양우 위원장 : -<시사 용광로> '2025년 광주시는?' 편은 지역방송으로서 광주광역시의 새해 시정을 시장에게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자의 침착하고 안정감 있는 진행은 시청자들에게 편안함과 함께 신뢰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시장의 답변 또한 시정 방향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어서 무난했다고 생각한다. 흔히 시정 설명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에게 호응받기가 쉽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잘 진행된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 다만, 시장의 답변 중 2025년 시정 청사진과 관련하여 첫째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5월 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은 그렇다 쳐도 계엄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발언은 좀 생뚱맞았다. 인터뷰 질문과 관련하여 시장께서 소비 늘리기를 강조했는데, 경제는 소비 못지않게 유무형의 생산이 중요한 측면임을 고려할 때 생산을 북돋울 적극적인 경제 진흥 전략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번 시정 인터뷰에서는 인공지능 등 기존의 정책의제 외에 광주광역시를 부흥할만한 새로운 의제가 제시되지 못해 시청하신 시민들께서 좀 답답했을 것 같다. 시장께서 강조하신 문화 스포츠 자원의 관광화와 관련해서는 인프라 구축과 연계 프로그램 시행을 제시했지만, 추상적인 언급에 그쳐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이었다. 사실 이번 인터뷰에서 시장이 제시하신 방안들은 그동안 얘기되어 오던 것들을 반복한 지극히 평범한 방안들로 광주광역시의 신년 중점정책으로 제시하기에는 수준이 매우 낮은 방안이다. 관광 불모지인 광주광역시에서 문화와 스포츠의 관광 자원화에 성공하려면 관광콘텐츠 개발, 연계 상품 전략, 마케팅 전략 등 입체적인 방안 또는 최소한 방향만이라도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사회자께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 또는 방침을 끌어내기 위한 추가 질문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뷰 전, 정책 전문가로부터 광주광역시 시정에 관한 자문을 얻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모든 인터뷰에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장시간이 소요되는 신년 시정계획 인터뷰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전문가 자문을 활용해 보심이 좋겠다. 사전에 기본적인 통계 같은 것을 준비해 예상 질문에 활용하면 훨씬 입체적인 인터뷰가 됐을 것이다. '2025년 광주방문의 해' 지정은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기아타이거즈 우승 등을 계기로 급조된 프로젝트로 보인다. 방문의 해 지정 및 실행은 최소 2~3년을 꼼꼼히 준비해서 실시해야 성공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인프라나 구체적 관광콘텐츠 개발, 연계 상품 전략, 교통 및 운송 방안, 음식 및 숙박 등 종합적인 관광 대책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결국 구호만 요란한 행사로 마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회자께서는 이런 문제도 지적하면서 인터뷰를 끌고 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 지엽적이지만 '광주시'라고 자막에 표시되어 있는데, 경기도 광주시와의 구별이란 측면과 새해 시정 관련 대담이라는 프로그램 성격상 공식 행정도시명인 '광주광

역시'로 표시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박종수 위원 : -2025년 한 해 동안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기를 기원하겠다. <광주MBC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는 홍진선 아나운서의 사회로 5개 구민이 묻고 구청장이 답하는 프로그램이다. 5개 구청장의 비전과 구별 특색있는 발전 방향을 공유해 주셨고, 구민들이 궁금한 것들을 구청장이 직접 답해줬다. 자신의 지역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구청장의 입으로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구민들의 입을 통해 궁금해했던 내용들까지 알 수 있어서 더욱 좋았다. 소통을 통해 좋은 정책이 입안되고 발전되길 바란다. 구나 시, 각 군 등 지자체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며 소통의 기회를 넓혀가길 바란다.

○ 유한별 위원 : -<시사 용광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무엇이 대형 참사 불렀나? 편은 제주항공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다각적 요인들, 사고 초기 대응의 아쉬운 점 등에 대해 기자님의 설명이 명료해서 좋았다. 아직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지만 피해 확대에 이바지한 로컬라이저에 대한 국토부의 견해에 관한 심재동 교수의 지적, 정원경 교수의 활주로이탈시스템의 도입 의견도 의미 있었다. 사고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유족들이 요구하는 사고조사위원회 참여와 투명성 보장, 사고조사 과정 등 대해 광주MBC가 지속해 관심 가지고 후속 보도해 주신다면 감사하겠다.

○ 이경주 위원 : -2025년을 맞아 광주MBC 앞으로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 대선정국에 들어갔을 때 지역 공약 등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취재가 시작되자> "국회의원 의전부터 수의계약 강요까지…." 광주 청년센터 갑질 의혹 보도에서는 광주MBC가 지역 내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행태를 고발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촉구한 점이 돋보였다. 이번 보도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알리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행정 절차의 중요성을 환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고발성 보도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관련 기관의 입장 발표와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취재를 통해 문제 해결 과정을 지속해 전달한다면, 시청자들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다.

-<광주MBC 뉴스데스크> '제주항공 참사' 관련 보도에 대한 의견이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누구에게나 가슴 아픈 비극이다. 희생자 중 절반이 광주시민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고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광주MBC가 이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조명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그 슬픔을 나누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진행 상황을 하나의 독립 섹션으로 제공한다면,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MBC 홈페이지의 디지털 콘텐츠 섹션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시청자들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콘텐츠는 특정 연령층이나 관심사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다. 시청자들이 각 연령층에서 선호하는 콘텐츠를 확인하고, 예를 들어 10대가 즐겨 보는 콘텐츠와 30대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구분하여 보다 세분된 섹션을 제공한다면, 다양한 시청자층의 관심을 끌고 디지털 콘텐츠 활용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숙희 부위원장 : -지난 연말부터 시작한 전례 없던 사건들과 지역 모두의 줄초상을 겪은 우리가 모두 넋 나간 시간이었다. 더구나 방송하시는 분들의 여러 고뇌와 용기, 그리고 방송인들의 책임은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깊고 클 것이라 여긴다. 시청자 위원 모두의 마음도 그러하겠지만, 현장에서 방송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지금의 방송은 역사다. 함께하고 있는 저희도 늘 응원할 것이다. 요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다. 방송 어디 봐? 하면 우리는 MBC를 본다고 한다. 우리 가슴에 맺혀 있는 것들을 뉴스 진행하는 분들이 멘트로 대신해주는 것 같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MBC에서 꺼내서 해준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문제에 관해 계속해서 보도를 바란다. MBC는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되고 중요한 기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정인영 위원 : -<광주MBC 보다> 2024년 12월 30일 방송에서는 재활용 쓰레기의 처리 과정을 소개하며, 사회자가 직접 참여하여 그 과정을 경험하는 모습을 담았다. 시민들이 다양한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있지만, 재활용을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 세척과 분리 공정을 다시 거친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유익한 방송이었다. 다만, 스티로폼과 알루미늄 캔의 재활용에만 초점을 맞춘 내용이 다소 간단하게 느껴졌다. 재활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특히 지역 정보를 소개하는 자막을 추가했더라면 더욱 유용했을 것 같다. 그 외에도 도자기 소개, 오미자차, 꽃차, 기

장의 멸치 수확 등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즐겁게 시청할 수 있었다.

-<시사 용광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무엇이 대형 참사를 불렀나?’ 편은 사고 발생 후 불과 4일 만에 방영되었음에도, 다른 방송에 비해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돋보였다. 사고 원인에 대해 성급히 추측하거나 여러 가능성을 나열하지 않았다. 대신 저비용 항공사 문제점, 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등 사고 당시 논의할 수 있는 본질적인 주제를 심도 있게 다뤄 좋은 방송이었다. 특히, 심재동 교수가 언급한 이퀄라이저를 콘크리트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공항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인상 깊었다.

○ 정회 위원 : -광주MBC가 탄핵이나 제주항공 참사 등에 적절하게 잘 구성하고 콘텐츠도 잘했고, 적절하게 의견을 잘 대변했다. 기업 관점에서 한 말 드린다면, 광주 상생형 일자리가 노사이슈가 있다. 상당히 안타까운 게 정해놓은 게 있으면 지켰으면 하는데 정해진 걸 무시하고,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는 부분이 그럴 필요가 있을 때도 있겠지만, 너무 규칙을 무시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 지적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 회사에도 피켓이 있던데 업무 장소에 있으면 안 된다.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면 안 될 것이다. 2024년 12월 26일 방송 ‘탄핵 정국, 야권의 역할은?’ 보도 의견이다. 탄핵 추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선 안 되고,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비전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호남은 야권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전국적 지지 확대를 위해 국민 통합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인상 깊었다. 1월 2일 방송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무엇이 대형 참사 불렀나?’에서는 제주항공 사고를 계기로 지역 공항들의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광주공항 통합 이전 논의와 함께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은 적절해 보였다. 1월 9일 GGM 노사이슈를 다룬 뉴스에서는 광주노사민정협에서는 상생 발전협정서의 내용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간략히 보도되었다. 협정서의 내용을 누가 어떻게 위배하고 있는지가 명확히 지적했더라면 더욱 좋았겠다.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노사문제에 관해 관심을 두고 보도를 해주길 바란다.

○ 박양우 위원장 : -오늘도 방송을 보다가 조금 아쉽다고 하는 게 있었다. JTBC는 전문변호사 등을 불러 윤석열 얘기하는 걸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짚어봤다. 엠비시는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JTBC 뉴스에서 법리적으로 안 되고, 틀렸다는 부분을 바로바로 진단해주는 것도 더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일부 시간에는 엠비시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8시~10시에는 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다. 기타 의견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방송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준수 요청 관련이다. 피해통계, 사상자·실종자 명단, 복구·구조 상황, 사고 원인·책임 방송 시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단정하거나 미리 판단함으로써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는 내용, 피해 현장, 복구 상황 또는 피해자 모습 등을 지나치게 자극적인 영상·음향 또는 언어 등으로 강조하는 내용 등 방송에 있어서 규정을 준수하길 바란다. 위원님들 의견에 관해 답변이 필요하면 해달라.

○ 김낙곤 사장 : -무안공항 참사는 계속 보도할 것이다. 군 공항 문제로 다투는 면만 다뤄온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본다. 사실상 근본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은 챙기지 못하고 정치인은 다루기만 한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역 언론의 역할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국가적으로 큰일이 많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정회 위원님 말씀하신 GGM은 원래 약속했던 노사 모델의 출발점에서 보라는 취지로 들린다. 저도 그런 부분에 관해 현장의 목소리와 균형 잡힌 시선으로 잘 들여다보고 보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 박양우 위원장 : -무안공항 참사는 너무 안타깝다.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했으면 좋겠다. 사장도 말씀했지만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오히려 계기로 해서 무안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 틀을 잡아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 지역사회 광주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새해에는 국정도 안정이 되고 경제도 나아져서 다시 한번 희망을 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시청자위원회도 생산적인 해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진다. 이상으로 1월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다.

끝.